

학교라는 울타리



배움의 庭園



임효경
완도중 교장

을 올려서 학교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누구는 인문학적 독서나 토론에 관심이 많아서 전남인문학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완도선상인문독서대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관심사를 토로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그 영역을 넓히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춤에 진심이고, 악기 연주에 진심이어서, 학교 축제에서 현란하게 춤 솜씨를 자랑하고, 학교 밴드부로서 축제의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합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날마다 성장하는 학생들의 행복한 소리를 듣는 것에 너무 몰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멀리서 바라보다보니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마음에 증오와 원망을 키우고 있는 이런 능소화같은 학생이 있겠구나 싶어집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툭 터질 것 같은 눈물 자루도 지니고 다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엄마라는 따뜻한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도 있겠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좀 더 세심하고 개별적인 보살핌과 좀 더 공정하고 다양한 돌봄이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교문맞이 하면서 아이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가방이 무거운 듯 어깨가 처지고, 표정이 밝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 아침밥을 먹지 않고 집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뇌 속에 산소를 공급하고 피를 원활하게 돌려줄 연료인 탄수화물 흡수가 필수적인데 말입니다. 배가고프니,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뇌로 가야 할 새로운 정보나 지식들이 배 속 창자에서 꼬르르~!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죽히 상상이 됩니다. 학생이나 부모는 그 결과를 보고 불만과 짜증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뒷받침해 주는 수고와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슬기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교와 가정 서로 도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 목요일에는 네 명의 2학년 학생들과 해남에 몸 풀러 갔습니다. 늘 말도 없고 표정도 없는 현이, 아직 피아노 영 어 철자도 모르는 경이,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아서 입가에 부스리기 피부염이 생긴 경이, 예사롭지 않은 눈빛과 말투로 늘 혼자 다니는 건이. 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지혜로운 한 선생님의 관심과 배려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도에는 볼링장이 없어서, 해남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해남 볼링장에는 기말고사를 마친 해남고등학교 학생들도 보였는데, 그 학생들의 멋진 폼과 스트라이크를 구경도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폼을 개발하여, 스트라이크와 스페어를 하며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키 크고 날렵한 경이가 연습게임에서는 제일 잘 했고, 내기게임에서는 경이가 이겼습니다. 경이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소, 염소, 닭 키우는 이야기를 늘 하는 아이입니다. 집안일을 잘 도우니,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완도빙그레영화관에서 함께 판타지 영화도 보았습니다. 영화감상 후, 롯데아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 함께 나눠먹으며 우리 여섯이 얼마나 수다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했던 현이도 빙긋이 웃었습니다.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멋지다,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다, 제각각 영화 평론이 제법 진지했습니다.

‘능소화 학생과 학부모’가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학교가 도대체 무엇을 해 주는가?’라는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망치 한 대를 맞은 느낌입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합니다. 능소화의 아름다움만 즐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속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좀 더 배려해서 각각의 아픔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개개인의 가슴에 억울함으로 인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부디, 용서를 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고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



베짱이도 ‘우울·불안’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개미와 베짱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근면 성실한 개미와 게으른 베짱이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

상상해 보면, 개미 입장에는, 무더운 여름 동안 겨울 대비를 했으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으며, 더구나 오가는 길에 빈둥거리는 베짱이 때문에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빈둥거리며 노래만 불러댔던 베짱이는 마냥 행복했을까? 하루하루가 저문 후 찾아오는 공허함과 고독, 혼자 있는 베짱이가 가지고 있을 법한 미래에 대한 우울과 불안함을 상상해 본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정신건강통계(World Mental Health Report)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의 우울장애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3,153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471명) 대비 27.6% 증가했다. 불안장애 환자도 인구 10만 명당 4,802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3,825명) 대비 25.5% 증가했다.

2021년 발표된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36.8%), 불안 증상은 4위(29.5%)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국민이 2022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기적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반면, 스트레스 증가,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지지망 약화,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며, 이는 가족 관계, 직장 생활,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

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다. 일상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 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상담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첫째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기관 확충이다.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가 대상이다.

둘째는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잘 안내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이나 문의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상담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1회 50분 이상 1년간 총 8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회 7만~8만 원인데 소득 기준에 따라 전액 바우처로 지원되거나 30%의 본인부담금이 있다.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담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정신건강 통계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도민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까지 보듬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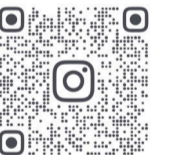


@jnilbo
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